

## 러시아 군수산업체제의 구조와 기능

金容煥\*

## 구소련 군수산업정책 시스템\*\*

군수산업과 정책구조를 연구분석할 경우에 크게 군수산업의 생산시스템과 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구소련과 같은 계획경제의 시스템에서 군수산업이 산업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구소련에서의 군수산업의 생산시스템에 관해 보면, 구소련에서는 군수산업의 생산활동은 공산당 및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우선 군사에 관한 최고 기관은 국방회의이며, 그 의장에는 공산당 서기장이 취임하였었다. 이 국방회의는 공산당의 정치국에 대해서 국방에 관한 일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공산당에는 조직으로서 당중앙위원회 군수산업부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이 군수산업을 통제했었다.

한편 구소련정부에는 관계각료회의에 군수산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군사관계의 조사, 설계, 개발, 시험, 생산활동에 관해 종합조정을 행하며 또한 군수품의 해외조달, 외국기술의 취득에 관해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군수산업위원회가 군사장비품생산의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조직 속에는 군사생산에 직접 관련하는 부로서 9개

의 부가 있었으며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항공공업부: 항공기, 헬리콥터  
 통신기계공업부: 일반통신기기  
 국방공업부: 통상병기  
 전자공업부  
 일반기계제작부: 미사일, 우주기계  
 기계제작부: 군수품  
 중형기계제작부: 핵에너지의 군사응용  
 무선공업부: 무선통신기기  
 조선공업부: 해군용 제품, 함정

이 9개의 군사산업관련부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이 고스프랜(Gostplan), 국가건설사업위원회(고스스토로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규격위원회, 과학아카데미 등이었으며, 이것들 중 특히 고스프랜은 예산의 배분, 지원의 군수산업에의 배분에 관해 중요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9개의 부는 구소련의 군수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구소련의 군수공장은 '81년에 134개, 그 후에 135개로 증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군수공장의 건물면적은 합계가 약 4천만 평방미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장 하나당의 평균 건물면적은 약 30만 평방미터로, 일본류로 말하면 9만 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대

\* KIST 한·러센터 선임연구원, 경제학박사

\*\* 본문에서 '구소련(CIS)'은 러시아와 기존의 소비에트연방공화국내의 각국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포괄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음.

## 러 시 아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군수공장은 병기의 최종조립작업을 행하는 공장으로서 대부분이 기계 제조업으로 생각되어지나, 구소련의 통계에 의하면 '86년도의 기계생산 공장수는 9,209개이기 때문에 공장수로서는 아주 미미한 비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단, 이들 군수공장에서도 일부 민간용 제품도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군수공장의 생산품을 주요 군사목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군사목적별 군수공장 현황

지상부대용 해군용 항공기 미사일	24개 공장 24개 조선소 37개 공장 49개 공장
합 계	134개 공장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유도무기 즉, 미사일 공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료에서는 9개의 군수산업관련부는 무기 및 무기용품의 공장 약 1,000개의 공장을 감독하고 적어도 450개의 군사용 연구개발부문을 감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80년의 미국의 자료에 의한 공장수와 크게 다른 셈이 된다. 군수공장을 약 1,000개라고 한다면 기계공업의 공장 총수의 약 1할을 점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상이 전문적인 군수공장이지만, 그 밖에 군수산업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로서 다음의 8개 부가 있었다.

조립 · 특수건설사업부  
민간항공부  
전기기계공업부  
중기계 · 동력기계 · 운수기계제작부

공작기계 · 기구제작공업부  
해양선박부  
기계제작 · 자동화수단 · 제어장치부  
석유정제 · 석유화학공업부

이상의 관련 부처는 대부분이 전연방부이지만 조립 · 특수건설사업부만이 연방 공화국부로 되어 있다. 구소련에서의 군수산업은 軍産一體가 되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수산업에 간접적으로 관련하는 공장으로서 관련 시설관계, 지원공장을 포함해 3,500개 이상의 공장이 있었으며, 이들 군수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병기는 112 종류로 알려져 있다.

### 군수공장의 지역적 분포

군수공장의 구소련에서의 지역적 분포는 유럽지역, 특히 모스크바시 주변에 집중해 있다. 주요한 군수공장의 주소지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극동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콤소모리스크-나-아무레, 페트로파블로스크에 각각 조선소가 있고, 그 밖에 콤소모리스크-나-아무레에 항공기 공장도 있다.

'30년대에는 극동지역에 조선소는 거의 없이 병기의 수리공장이 널리 산재해 있다. 이것은 유럽지역에서 병기를 생산해, 극동지역에서는 수리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그러한 방침은 변화해 오고 있다. 구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증강에 따라 극동지역에 4개의 조선소가 있다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군수산업의 설계국

## 러 시 아

군수공장과는 별도로 군수산업기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설계국이었다. 미국의 자료에서는 450개의 군사용 연구개발조직이 있었으며, 또한 약 50개의 중요한 설계국은 150~200개의 주요한 병기시스템을 설계했었다. 미국의 구소련 군사연구가 코크반에 의하면, 일례로 구소련에서 제트 전투기를 스탈린 시대에 최초로 제작·설계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호이, 라보치킨, 아레크세예프, 미코양-그레비치, 야코레브 등 5개 소련의 설계국이 제트 전투기 제1호를 만든다는 계약을 따내려고 다투었다. 모두가 원형을 제작했지만 미그 15로 알려지게 된 미코양-그레비치 설계국은 남은 경쟁상대를 미그 17과 초음속의 미그 19로 해치웠다. 패배한 원형의 전투기는 어느 것도 두번 다시 보이지 않았다. 1953년 이후 라보치킨 설계국은 有人항공기 업계로부터 모습을 감추었다. 수호이 설계국도 이들 경쟁에서 항공기 전체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호이는 후르시초프의 옛 벗이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서 구해졌다.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스탈린의 사후 사태는 바뀌었다. 최고의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은 없어져, 대신 누구의 항공기라도 建造되고, 적어도 적급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실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누구도 실업하는 사람이 없고, 실패한다고 해도 추궁당하지 않는다. 이 온정주의의 직접적 결과로 구소련은 많은 수의 다른 형태의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의 공격에 대해서 오로지 소련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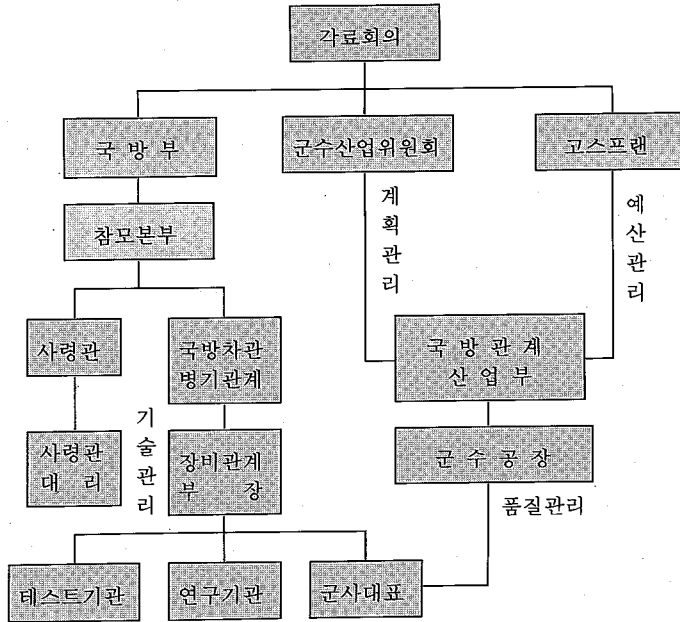
토의 방위를 임무로 하는 방공군에 놀랍게도 8개의 다른 전투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각 항공기는 서로 다른 훈련, 보급선, 수리공장, 예비부품을 필요로 하여 대단한 비용이 들어 비능률적이라는 얘기가 된다.<sup>1)</sup> 현재 러시아가 우수한 기술인력과 제조경험을 갖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차원에서 열등한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열친 러시아 정부는 이점을 개선키 위한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용 비행기 수출에 관해서는 '94년 1월에 설립된 정부 수출입 독점기수인 로스보르제니아社가 독점하였다. 그러나 독점의 비효율성과 열친정부의 비자금창구란 인식때문에 1995년 6월부터 대통령령으로 로스보르제니아社의 독점권이 마포(Mapo)社를 비롯한 7개 거대방산기업들에게 일부 넘어가 경쟁체제를 보이고 있다.

## 구소련의 병기조달 시스템

일반적으로 구소련의 병기와 민간용 상품의 품질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구소련의 병기는 품질이 좋고 민간용은 저급했었다. 이것은 구소련의 국방부가 파견하는 군사대표에 의해 군수공장의 제품이 철저하게 체크되었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병기조달 시스템을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어느 나라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일이지만, 구소련에서도 상당수의 군인이 군수공장에 직접 근무하여 감독지도를 하였다.

구소련의 군사규정에서는 구소련의 장교가 군수산업에서 일할 경우의 급여 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되어 있었다. 구소련 장교는 각료회

러 시 아



<그림 1> 구소련 병기조달시스템

의 결정에 의해 현역신분으로 국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구, 민수제기관에 파견되었으며, 당해 장교는 구소련 육해군 장교로서의 모든 권리, 특전, 편의를 보장받았다. 당해 근무기간, 급료와 군복은 당해 근무제부, 기관의 지출에 의해 지급받았었다.

또한 구소련 국방부는 각 군수공장에 군사대표를 파견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조절할 권리를 부여받았었다. 즉, 병기, 장비, 그 밖의 군수품을 제조하는 기술공정의 유지와 그 예측가격을 조절하였으며, 그들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의 조회시험 및 점검을 실시한 후 최종제품의 수령을 행하였다. 그들은 여러 기업 중에서 부대의 대표자에 의한 새로운 종류의 병기장비의 연구를 계획하며, 또한 수령시와 사용시에 나오는 불량품을 체크하였다.

이상과 같은 메카니즘도 현재 군비감축과 러

시아 정부의 어려운 재정적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구체제의 모순을 개선키 위한 공감대는 있지만 그것을 추진할 예산의 부족 때문에 러시아내 정책의 일순위였던 군수정책과 군수기술구조의 조정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중추였던 군대조직의 장악과 지원에도 많은 함수관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책의 2대과제인 민영화와 군수산업 전환정책이 국민들과 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96년 대통령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주]**

1) 매년 개최되고 있는 '95 모스크바에어쇼에서도 공장별로 생산한 수 많은 종류의 비행기 모델이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